

“광양만권경제청 인허가 갑질” 해룡산단 입주기업들 빚더미

시행사와 폐수시설 증설 분쟁
산단 일부준공 신청 계속 반려
23곳 재산권 막혀 재정 압박



순천 해룡산단 입주기업들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인허가 지연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해룡산단 전경.

“약속했던 일부준공이 떨어지지 않아 소유권 이전을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자비용만 1년에 1억원 이상 추가로 나가고 있다. 산단 조성 목적이 기업하려는 사람에게 좀 더 편리한 절차-혜택을 주려는 것일텐데, 오히려 사업을 막고 있으니 입주기업들이 봉인인가?” <해룡산단 입주기업 임원 A씨>
“지난 8월 입주했는데, 등기가 금방 되는 줄 알았다. 추가 부지를 계약하려는데 등기가 나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걱정이야. 사업을 계속 추진해도 문제가 없는 지 답답하다.” <입주업체 대표 B씨>
수 백억원을 투자해 입주한 순천 해룡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서 이자 부담과 금융권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인허가 기관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이 일부준공 인가를 해주지 않고 있어서다.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해룡산단 입주기업은 23곳에 달한다. 여기에 이주자 택지 48가구도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있는 상

황이다.

이들 입주기업 대표는 지난달 29일 전남테크노파크 국방벤처센터 회의실에서 회동을 갖고 “광양경제청의 갑질”이라며 “머리피라도 돌려매자”고 불만을 토로했다.

입주업체 대표 C씨는 “광양경제청의 갑질이 말이 되느냐. 경제를 돌게 하려는 기업에게 이래도 되는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이 ‘광양경제청의 갑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해룡산단 조성 과정에서 시행사인 대우건설과 광양경제청이 일부준공을 전제로 협의하며 산단을 조성해 놓고, 막상 일부준공 신청을 하자 폐수처리시설 증설비용 부담 문제를 빌미로 신청서를 반려했다는 점이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광양경제청과 협의해 지난 2016년 일부준공을 위한 단계 구분을 했고, 다음해 확정 측량을 마친 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했다. 이후 올해 8월부터 3차례 일부준공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해룡산단을 2개 지역으로 분리해 공사를 하고, 먼저 완료한 2-1단계는 일부준공 인가를 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양경제청은 “시행사 측이 폐수처리시설 증설비용 부담을 못하겠다고 한데다, 공공시설 관리주체도 모호해 준공 인가를 내줄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폐수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가를 해주면 대우건설 측이 나중에 오리발을 내밀 수 있으니 이번에 매듭짓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다.

대우건설 측 주장은 조금 다르다. 대우

건설이 공사를 하다가 도망갈 회사도 아닌데 입주업체들의 고충을 외면한다는 것이다. 빌미가 된 폐수처리 문제는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2-2단계 시행 과정에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폐수처리시설 증설비용을 놓고 입주업체들을 불모로 광양경제청과 대우건설 측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일부준공 인가가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

입주업체들은 “그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라며 “입주업체를 불모로 삼는 행위를 당장 그만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주업체 대표 D씨는 “2015년 입주계약을 했는데 등기가 안돼 3년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이자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졌고 타은행 거래마저 제한돼 피해가 크다”면서 “광양경제청과 시행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룡산단은 순천시 해룡면 호두·신성·선월리 일원 159만2808㎡ 규모로 조성 중이다. 1단계 입재단지는 33만1405㎡로 순천시가 개발을 마쳤다. 2단계 일반산단은 126만1403㎡로 대우건설이 시행 중이며, 2-1단계 65만3179㎡가 사업을 끝내고 일부준공을 앞두고 있다. 2-2단계는 마그네슘 소재·부품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거액을 빌려주고, 채용청탁까지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지검 청사 앞에서 검찰 출석에 앞서 광주시민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영산강 올 첫 결빙...평년보다 27일 빨라

광주지방기상청은 10일 “영산강(광주산동고)에서 올 첫 얼음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겨울보다 3일 빠르고 평년보다 27일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11일 광주·전남은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아침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예상 강우량은 5mm 안팎. 광주와 전남 내륙지역 일부는 눈이 올 가능성도 있으나 적설량은 1~3cm로 많지 않을 전망이다. 비 또는 눈은 밤부터 점차 꺾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4도, 낮 최고기온은 3~8도로 평년(아침 최저기온 영하 1.9도~2.8도, 낮 최고기온 9~10.7도)과 큰 차이는 없다.

기상청은 주말인 15일까지 광주·전남은 고기압 영향을 받아 맑은 날씨가 계속되다 휴일인 16일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비가 오는데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당분간 깨끗한 공기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윤장현 전 시장 검찰 출두...선거법 위반·직권 남용 등 조사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 지겠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검찰에 출석해 광주시민에게 사과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관련기사 6면>
윤 전 시장은 6·13 지방선거 사법 공소시효(12월 13일) 만료를 앞두고 광주지검에 출석했다.

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광주지검 청사 앞에서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시장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광주시민 여러분께 상처를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러 “사실에 입각해 거짓 없이 조사에 임할 것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공천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강력히 부인했으며, 보이스피싱 사기범 김모(여·50)씨에게 보낸 4억5000만원 중 지인에게 빌린 1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소상하게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선거와 관련해 김씨와 특별히 주고 받은 이야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날 윤 전 시장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씨에게 사기당해 김씨의 자

녀 채용까지 청탁한 윤 전 시장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윤 전 시장은 공천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안부(부장 이희동), 채용 청탁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 특수부(부장 허정)를 오가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또 윤 전 시장이 김씨에게 보낸 4억5000만원의 출처를 밝히는 데도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은행 2곳에서 빌린 3억5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억원은 윤 시장의 비서 A씨가 제3자에게 받아 김씨에게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확

인됨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혐의 적용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공소시효가 임박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집중하고 있다”면서 “채용 청탁 및 지인에게 빌린 1억원의 출처 등에 대한 수사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채용 청탁 사건에 연루된 광주시 산하기관,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 등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전남 산학연 클러스터의 심장! 미래 대한민국의 실리콘 벨리! R&D특구,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에서 성공신화를 이루세요!

전라남도 장성군

나노산단

첨단3지구

첨단1·2지구

- 1 apri 고등과학기술연구소
- 2 G-sitrici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 3 QDC 광주디자인센터
- 4 국립광주과학관
- 5 KATECH 자동차부품연구원
- 6 ETRI 전자통신연구원
- 7 KIPID 한국광산업진흥회
- 8 IC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9 한국산업단지공단

EDU & ECO

- 과학기술원, 전남대, 조선대, 국립광주과학관, 과학고가 위치한 우수한 교육환경
- 연구개발 특구로써의 풍부한 혜택(연구비 지원, 세제혜택 등)
- 영산강변 친수공원, 산책로, 캠핑장, 드론비행연습장 등 쾌적한 자연환경

INDUSTRY & RESEARCH

- 1,2단계 946개 기업유치에 이은 3단계 조성으로 더욱 커지는 비전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주테크노파크 등 20여개 연구 및 지원기관 위치

TRAFFIC & LIFE

- 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 광산IC 5분), 공항(무안공항 40분내), 고속철도(KTX송정역 20분내), 북광주IC(나주혁신도시 30분), 도시철도 2호선(첨단2지구 경유)
- 가까운 첨단1·2지구, 양산-일곡지구 등 생활편의 인프라 구축

FUTURE & VISION

- 인공지능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국립심혈관센터 등 3단계 개발로 미래첨단 4차산업의 거점으로 도약
- 인근 나노산단(전남 장성), 하남-전곡산단(광주)과 연계해 통한 광주, 전남 지역간 상생발전

문재인 정부 광주전남 상생공약! 첨단3지구 개발!! 대한민국의 미래로!!

→ 국립심혈관센터, 인공지능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의료산업 클러스터, 포토닉스케어, 친고령산업집적단지